

옛 정의현성 600년 만에 이어지나

성산읍 LH임대주택 공사장 인근서 15m 규모 성곽 발견
문화재청 조사 착수… 도 “문화재 지정·복원 계획 검토”

속보=600년 넘는 제주의 고성(古城)이 새롭게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이는 신세(본보 5월 21일자 4면)가 된 가운데 약 400m 인 근에서 또 다른 성곽이 발견됐다. 문화재당국은 원형보존 및 추가 발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체 성곽을 잇는 복원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33-1번지 일대에서 ‘옛 정의현성’에 대한 시굴조사가 진행됐다. 이는 해당 부지에 ‘고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추진되면서, 문화재청이 사전에 매장된 문화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굴조사 결과 길이 약 15m 규모의 옛 정의현 성곽이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설공사를 중단시키고, 추가 발굴조사를 (재)제주고고학연

구소에 의뢰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에는 해당 부지에서 400m 가량 떨어진 ‘LH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사현장에서도 길이 약 220m에 이르는 옛 정의현 성곽이 발견된 바 있다. 이 성곽은 기반부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등 축조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었지만, 문화재청이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성곽이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이는 형국이 됐다.

옛 정의현성 성곽이 잇따라 나오면서 제주도는 보존을 넘어 ‘복원’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이는 성곽 등 문화재가 고립되면 그 가치가 퇴색된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관계자는 “문화재청 추가 발굴조사 및 문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옛 정의현성을 문화재 혹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서 발견된 옛 정의현 성곽.

사진=(재)제주고고학연구소 제공

하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정의현성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 기존 17현을 제주분읍과 대정·정의현 1읍 2현 체제로 통합 정비할 당시 고성리에 설치됐다. 이후 방어상의 문제 등 여러 불리한 조건으로 고성리에 있던 정의현성을 1423년(세종 5년)에 지금의 성읍리로 옮기게 됐다.

고성리는 정의현성이 있었던 마을

이라 해서 ‘고정의현’이라 했으며, 오늘날에는 고성(古城)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옛 정의현성은 이러한 조선 초기 제주 성곽사와 행정체계의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인 것이다.

옛 정의현성은 총 길이 1.45km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원형이 남아 있는 구간은 870m, 유실된 곳이 430m, 변형된 구간이 150m로 추정되고 있다.

송은범기자



안개에 갇힌 금악오름 비경 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이 안개에 휘감긴 채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日 역사왜곡 바로알기 교육

전교조 제주지부는 4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의 일제 강제징용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및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계기 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주간에는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그림책 ‘군함도’ PPT 학습자료(초등용) ▷그림책 군함도 독후 활동지(초등용) ▷강제징용의 진실 PPT 학습자료(중등용) ▷강제 징용의 진실 읽기 자료(중등용) ▷강제 징용 관련 학습지 2종(중등용) 교육을 진행한다.

표성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자치경찰단, 10월부터 과속단속반 운영

제주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빠르면 10월부터 자치경찰단의 과속단속반이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조도개선 및 운

전자 시야 개선을 위한 가로수 가지 치기가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고 이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또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도로시설물을 보장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한달간 65세 이상 어르신 보행자를 대상으로 맞

춤 교통안전교육을 집중 전개했으며, 이륜차 반사지 3000매를 제작·배포했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고, 자치경찰단 산하 과속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9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 동·서로, 변영로, 연삼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기로 했다.

조상윤기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 봤다

제주대 제주악취관리센터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
지정전 66%→ 지정후 14%”

양돈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과 악취허용기준 초과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 제주대교수)는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악취허용기준 초과율이 66.2%였지만 올해 2분기는 13.9%로 약 79% 감소율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악취관리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7개 양돈 농가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4조에 근거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양돈농가와 관계 공무원, 축산환경감시단, 도민 등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축산악취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해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기존 악취관리지역 57개 양돈 농가와 7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56개 농가를 포함해 총 113개소로 악취실태조사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또한 악취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277개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지원은 11건이며, 한림읍 지역 7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양돈분뇨 무단 유출 사건을 계기로 설립해 3일 설립 1주년을 맞은 제주악취관리센터는 분기별 실태조사 및 마을현황조사, 악취 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제주 악취 저감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표성준기자

추석 맞아 3개 오일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6~15일 최대 2시간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3개 오일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539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도내 해당 시장은 대정오일장, 표선오일장, 고성오일장이다.

경찰청 등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방청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진다.

백극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지난 여름 열대야 27.5일

6~7월 평균기온 24.6℃
폭염일수도 2.5일 그쳐

그쳤고, 열대야일수도 41일에서 27.5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여름기온이 낮았던 이유는 6월 중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주기적인 영향, 7월 중순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티벳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해 7월 후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제주의 가을(9~11월)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19 노동자 희망찾기 한마당

일시 2019. 9. 7.(토) 13:00~18:00

장소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제주시 수목원길 9)

초대의 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제주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함께 키워 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마당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축제의 마당으로 사진전, 무대공연, 노동 상식 골든벨 및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목원 길의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2019 노동자 희망찾기 한마당” 축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요 행사내용

(첫째 마당) 개회식 및 주요 내·외빈, 노동자, 도민이 함께하는 참여 마당

(둘째 마당)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동아리 공연

(셋째 마당) 노동자 권리찾기의 첫걸음 : 2019 노동상식 골든벨

(시상 및 폐회) 우수노동자 수기 공모에 대한 시상, 폐회 및 기념촬영

부 대 행 사

(무료 상담코너) 노동법률, 취업상담, 미술심리검사 및 간단한 의료진단 서비스

(체험 및 전시) 사진 공모전 수상작전시 및 화분만들기 떡만들기, 오카리나 만들기 등 무료체험

프로그램 안내

구분	시 간	세부 일정	비 고
첫째 마당 (개회식 및 참여마당)	13:00~13:45(45')	■ 행사참여자 도착 및 착석	
	13:45~14:00(15')	■ 난타공연	
	14:00~14:10(10')	■ 참여 마당 준비 - 참여마당 의미 설명(10')	
	14:10~14:20(10')	■ 개회선언 - 행사시작 및 진행순서 알림 - 주요 내외빈 참석자 소개	
	14:20~14:30(10')	■ 개회식 및 축사 - 개회인사 - 주요 외빈 축사	
	14:30~14:50(20')	■ 노사민정 화합을 위한 화제 나눔 행사	내·외빈, 근로자 및 도민과 함께
둘째 마당 (문화공연)	14:50~15:20(30')	■ 초청가수 공연	
	15:20~15:30(10')	■ 둘째마당 준비 - 둘째셋째 마당 행사 설명 및 무대 준비	
셋째 마당 (문화공연)	15:30~17:00(90')	■ 문화 공연 - 비정규직 문화동아리 공연(8팀)	

구분	시 간	세부 일정	비 고
셋째 마당 (골든벨)	17:00~17:30(30')	■ 노동자 권리 찾기의 첫 걸음 : 2019 노동상식 골든벨	사전 접수 및 당일 접수 병행
시상 및 폐회	17:30~18:00(30')	■ 시상식 및 기념촬영(15') - 우수 노동자 수기 공모 입상자 시상 ■ 골든벨추첨(15')	입상기준은 별도로 정함
부대 행사	13:00~18:00	■ 무료상담코너 -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 미술심리검사 - 의료진단 및 건강정보 서비스 ■ 행사주변 놀거리 및 먹거리 - 화분 만들기, 오카리나 만들기 등 - 투호 놀이, 링던지기 놀이, 제기차기 등 - 화채, 떡 등	무대 주변 부스 설치 후 주요 행사진행 동안 부대행사 실시
	유관기관	제주지역민적지원개발위원회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주최·주관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